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인지 고민하라

(사도행전 20:17-25)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며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숭고한 고백은 성도가 도달해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뜨거운 헌신이나 지속적인 영적 성장 없이 무기력함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본문은 두 가지 명확한 차이점을 짚어줍니다.

첫 번째 차이는 관심과 실제 삶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믿음의 본질과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결심, 마음의 각오에만 머물러 있는 반면, 바울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오직 말씀으로 살아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내면의 부담감만 안은 채 살아갑니다. 이는 마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한 관심과 걱정만 많고 정작 책상에 앉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놀고 싶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냥 공부를 합니다. 이와 달리 많은 교인이 교회의 온갖 행사나 다른 성도들의 일상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만, 그것이 결코 성숙한 신앙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 종교적 관심은 어른 수준이지만 실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알보이지 않기 위한 것들에 투자합니다. 온갖 실력과 재물과 스펙을 쌓는 데 삶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남들에게 끌리지 않으려고 외모를 치장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분투하지만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심지 못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동기로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알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 대고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챙겨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나아가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시선으로는 보잘 것이 없고 알보이기 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사람을 구경꾼에 머물게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과 감정과 선택의 기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습니다. 참된 믿음은 스스로 십자가를 등에 지게 만들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알보이지 않으려는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장 조사를 한 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분별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 달음질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일은 단순히 고된 일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헛된 일입니다.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스 신화처럼, 산꼭대기로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닿자마자 바둑으로 굴러떨어져 영원히 같은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형벌은 인간에게 가장 잔혹한 고통입니다. 인생의 참된 방향과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는 '어떻게'는 마귀의 질문이고 '누

구나'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갈파했습니다. 탕자의 비극 역시 자신의 능력과 소유라는 수준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수준이 무너져 돼지 쥬엄열매를 먹는 밀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탕자는 자신의 수준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기억해 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적인 수준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는 존재적 신분으로 대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악한 사람이나 비난하는 상대를 마주했을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똑같이 잔인하고 비열한 이리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신분으로 출발하면 상대방의 악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온유함과 하늘의 지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학벌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 같은 인간적 수준에 집착하지만, 세상의 수준에 매인 인생은 조금만 잘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부족하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성도는 세상의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분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거친 현실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며 억울함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한 순간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신분 안에 온전히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과 후회와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섞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벼운 평가에 흔들려 자신을 비하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